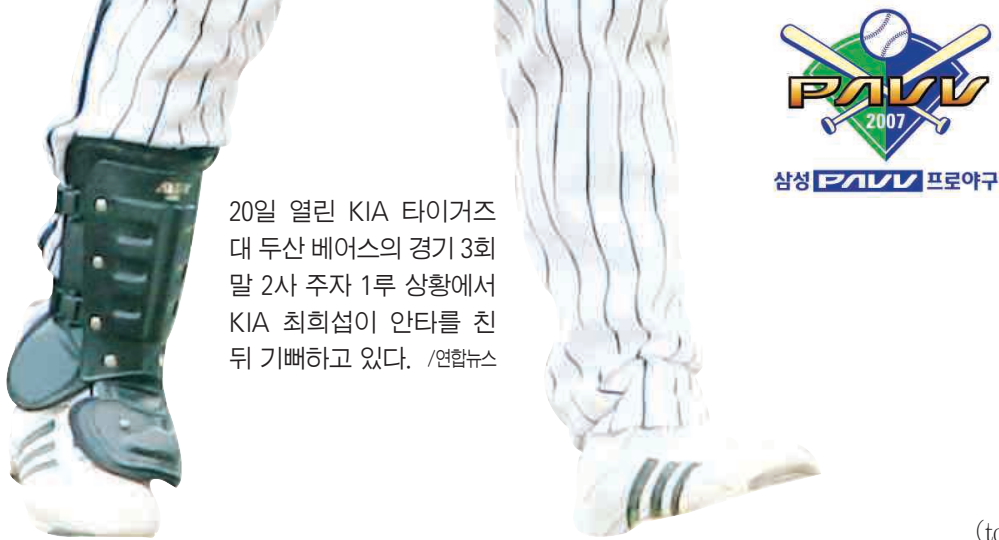


세계질 푸르른 양양지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화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20일 열린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3회 말 2사 주자 1루 상황에서 KIA 최희섭이 안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초이 바람’ 잠실 강타

주말 KIA-두산전 시즌 첫 만원관중

취재 열기도 후끈...구단서 보호작전

앞으로 ‘빅초이’인 최희섭(28·KIA)의 애칭을 ‘토네이도(tornado)’로 바꿔야 할 듯 싶다. ‘최희섭 바람’이 이를 연속 잠실벌을 강타했다. 최희섭이 국내 무대 데뷔전을 치른 지난 19일 KIA-두산전이 열린 잠

실구장은 경기전부터 최희섭 열풍으로 들쭉했다. 경기시작 3시간전부터 빗줄기가 오락가락 했는데도 지정석 3천석은 1시간 30분전에 매진됐고, 경기 시작 1시간 만에 3만500석이 모두 들어차 울해 첫 만원 사례를 이뤘다. ‘한국야구의 중심’ 잠실구장의 경우 지난달 LG와 KIA의 시즌 개막전과 이달 LG-두산의 라이벌전 등이 벌어졌으나 단 한차례도 만원 관중을 끌지 못했다. 시즌 33번째 경기 만에 ‘최희섭 효과’로 겨우 체면 치레를 한 것이다. 잠실구장에 만원 관중이 모이기는 지난해 6월13일 두산-SK전 이후 11개월 만이다. 하지만 당시엔 2005 독일월드컵

한국-토고전이 경기 후 전광판으로 상영된 이벤트 행사의 영향이 컸다. 20일 KIA-두산전도 오전부터 KIA측 응원석인 잠실구장 3루측은 노란 막대를 손에 쥔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총 입장 관중은 만석에 조금 못미치는 2만8천894명. 최희섭을 취재하기 위한 열기도 뜨거웠다. 최희섭의 프리배팅 맨 기자 30여명이 그를 둘러싼 채 ‘일거수 일투족’을 취재했고, KIA측은 이례적으로 경기전 최희섭의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최희섭 보호’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정연이 19일 미국 뉴저지주 어퍼 몬트클레어골프장에서 열린 사이베이스클래식 3라운드 5번홀에서 이글퍼트에 앞서 캐디와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AFP=연합뉴스

16언더 단독 선두...2위 오초아와 2타차

LPGA 사이베이스클래식 3R

이정연(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생활 6년만에 첫 우승을 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정연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몬트클레어골프장(파72·6천43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3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잡아내며 7언더파 65타를 뺀내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1라운드 단독 선두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공동 선두를 달렸던 이정연은 이로써 사흘 내리 리더보드 맨 윗줄을 지키며 우승컵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이정연은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를 따라 붙은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끝에 2타차 2위로 밀어내 4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기를 꺾는 수확까지 올렸다. 조령아(23·농수산협소풍) 등 3명이 7언더파 209타로 공동3위 그룹에 포진했지만 이정연과 9타차, 오초아에 7타차로 뒤처져 최종 라운드 우승 경쟁은 이정연-오초아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5타를 줄인 김영(27)이 단독 6위(6언더파 210타)에 오른 가운데 김인경(19)이 69타를 쳐 공동7위(5언더파 211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신인왕 레이스 1위 안젤라 박(19)은 11위(4언더파 212타)로 순위가 다소 떨어졌고 1오버파 73타로 부진했던 박세리(30·CJ)는 공동12위(3언더파 213타)로 밀렸다. 김미현(30·KTF)은 무릎이 아파 기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홍순상 프로 첫 우승

KPGA XCANVAS 오픈

‘미남 골퍼’ 홍순상(26·SK텔레콤)이 한국 프로골프 데뷔 2년만에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일 두산전에서 2안타

“광주서 홈런 신고 목표”

KIA, 주말 2연전 장군명군

기록했고, 이현곤의 안타 때 3루를 밟은 뒤 2사 만루에서 김상훈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데뷔 첫 득점을 올렸다.

최희섭은 또 밀타 3-6으로 뒤진 8회 2사 3루서 두산 5번째 투수 정재훈과 맞섰지만, 129km짜리 바깥쪽 체인지업에 속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KIA는 최희섭의 멀티 안타에도 불구하고 선발 이상화의 2.1이닝 4안타 2실점 등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3-6으로 패했다.

최희섭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안타를 쳐서 기쁘다. 타격감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틀동안 타석에 들어서고 보니

공도 잘 보이고 실전 감각도 많이 되찾은 듯 하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또 “어제(19일) 주루 플레이도 중 상대 선수와 부딪힌 옆구리가 조금 아파서 풀스윙은 하지 못하고, 짧게 끊어쳤다. 다음 경기부터 풀스윙이 가능할 듯 하다”면서 “22일부터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3연전(롯데)은 홈 첫 경기라 그런지 기대도 되고 긴장감도 든다. 홈런들 앞에서 홈런을 터트리는데 목표”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부산에선 한화가 조원우의 역전 3점포에 힘입어 롯데에 4-1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이어갔고, 선두 SK는 인천 문학구장에서 현대를 3-2로 무너뜨렸다. 삼성은 삼성수와 양준혁의 스리런포를 앞세워 LG에 9-0, 대승을 거뒀다. 한편 KIA는 지난 19일 두산전에서 7.2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윤석민과 장성호, 김중국의 홈런에 힘입어 두산에 6-0으로 승리했다. /잠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선주 역전 우승

KLPGA 한국여자오픈

목심의 안선주(20·하이마트)가 태영배 제2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KIA 새 용병 영입

투수 로드리게스...최고구속 152km

KIA 타이거즈가 최고 시속 152km를 뿌려내는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다.

KIA는 20일 “펠릭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35)와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만달러 등 총액 30만 달러에 입단 계약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183cm, 95kg의 다부진 체격에 시속 152km의 빠른 볼과 135km의 변화구를 던지는 전형적인 ‘파워피처’로 1995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한 뒤 신시내티, 샌프란시스코 등을 거치면서 통산 35승26패, 평균 자책점 3.72를 올렸고 마이니리거에서는 23승30패, 평균 자책점 4.22를 기록했다.

KIA측은 로드리게스가 그동안 마지막 3이닝 정도를 소화하는 ‘통맨’으로 활약해 온 만큼 선발로 투입할 지, 마무리로 올릴 지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KIA는 그동안 지명타자로 뛰어난 래리 서튼(37)을 합의를 임의탈퇴시켰고, 내야수 송산(25)을 1군에 올렸다.

/잠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선주는 20일 경북 경주의 디아너스골프장(파72·6천39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언더파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4언더파 212타로 지현(21·캘러웨이)과 2타차를 뒤집고 정상에 올랐다.

시즌 2승을 거둔 프로 3년차 안선주는 우승 상금 1억원을 쟁겨 시즌 상금이 1억5천146만원으로 상금 랭킹 1위로 도약했다.